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368회)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에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안

제 안 자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18년 월 일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8. . .

제 안 자 :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주 문

-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국가발전 전략인 강호축의 핵심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함.

제안이유

-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은 강호축의 핵심으로 충북선을 고속화하여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 그동안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국토의 불균형적인 개발이 초래 되었으며,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강호축의 개발은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 할 것임.
-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강호축 개발, 국가균형 발전, 남북교류의 핵심인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함.

- 보내는 곳: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에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안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가발전 전략인 강호축의 핵심으로 충북선을 고속화 하여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경부축은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의 대동맥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성장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견인해 왔으나 국가의 모든 자원이 지나치게 경부축에 쏠림으로 인해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을 초래 하였습니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으나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호축의 개발은 지역간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할 것입니다.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철도고속화는 남북의 철도망 연계는 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 · 만주 횡단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은 지난 2016년 6월 제3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2016년 1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충분한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면 현재 운행중인 호남고속철도와 무안공항 경유 노선은 비용대비 편익률(B/C)이 각각 0.31과 0.48로 낮았지만, 사업계획 재검토 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추진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경부호남선의 고속철도망 완성 및 장래철도망 연계성 제고,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 및 상대적 낙후지역인 전남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등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추진된 선례가 있습니다.

또한 원강선(원주~강릉)고속철도도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29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2008년 ‘국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돼 2018동계올림픽 유치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추진된 선례도 있습니다.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호축 개발은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토불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핵심사업입니다.

따라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도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국토교통망(강원~충북~호남) 완성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3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강호축 개발, 국가균형발전, 남북교류의 핵심인 충북선철도고속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8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